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城北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市民局，保健所，貞陵1洞，敦岩2洞

日 時：1996年12月2日(月) 午後4時
場 所：區廳5層講堂

(16時30分)

○委員長 權赫驥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권혁기입니다.

1996년도 시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
명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
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윤
수현 시민국장님·조종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정릉1동장님과 돈암2동
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시민국, 보건소, 정릉1동, 돈암
2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소속 업무는 어느하
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만 이번
감사방향은 주민이 바라는,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두어 청
소, 환경,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
는 정책감사와 생활민원분야에 주안점을 두
어 제도적인 모순점과 시정해야 할 사항,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통한 지방자치 행정 정착에 방향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에서는 이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
적사항이나 미흡한 분야도 많았습니다만 윤
수현국장과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 제도
상 잘못된 점, 잘못된 관행, 그리고 공직
자 내부의 구조적 의식을 과감히 고쳐 나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본 의원은 물론 동
료의원께서도 읽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
다.

중전의 행정편의와, 관 주도에서 능률위주
로 추진하던 행정을 여론과 민의를 중시하
는 행정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간부직 공
무원간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나, 하위
직 일부 공직자는 구시대의 틀을 아직 벗
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양교육 등으로, 하나
하나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
다.

먼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의 방만한 예산과 사
업추진을 보아서 타부서에 비하여 업무의
과중을 느꼈습니다. 특히, 영선업무에 대하
여는 전문직이 없어 추진과정, 시행착오 등
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업무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
도 있지만, 이 업무가 우리 건강과 얼마나
중요한가를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담당부서 직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공해, 폐수, 오수 단속등 24시
간을 뛰어도 모자라는 업무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형식적 단속에 일관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분야는 전보다 많은 개선과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고질적인
관행과, 팀제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
다. 생활쓰레기의 어려운점은 주민의 의식수
준과 대행업소의 사명감 결여 등 지도감독
의 한계로 인한 주민의 불편 등 해결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생분야는 관리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별사고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구조적 향락과 퇴폐 문화 등으로 식품위생분야는 위험수위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변태·퇴폐업소의 단속이 형식적인 면적부만 주는 행정지도가 아닌가 염려스러우며 현재 인력 구조로는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며, 강한 의지와 획기적인 단안이 없는 한, 퇴폐·향락업소의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 업무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물가의 동향이 우리구에 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분야는 크게 두가지 업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예방과 진료 서비스 향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후, 평상업무이외의 특수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남달리 노력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과 조직에 비하여 방만하게 추진하다 보면 내실을 기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보건예방업무가 더 비중이 있다는 것을 전직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기능별로 자체평가하여 내실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양 보다는 질을 높이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의 인력에 대한 불합리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주사와 진료를 해야 할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과 서무를 보는 것은 앞으로 인력관리의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별 총괄적인 평을 마치고 이렇듯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감사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고 이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잘된 부분보다는 개선 및 지적

된 사례를 몇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업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월곡동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시설을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앞으로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수지타산을 위하여 장애인용으로 사용할 공간을 타용도로 변칙 사용하다가 외부 감사기관에 지적되어 시정조치된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정복지과 업무의 과중입니다.

인력과 조직에 비하여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정, 어린이집 등 영선업무에 전문인력이 없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검토해볼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세째, 청소년 지도위원 재정비를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사명감과 봉사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흥업소 대표 등 부적격자가 구성되거나, 청소년 지도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위원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넷째, 심야영업 및 불법 변태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월곡동 88번지 일대 지도단속 요망입니다. 심야 및 변태업소에 대하여 기동반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단속방법을 달리하여 퇴폐 및 심야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시공과정중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주민이 신청한 것은 외면하고 100m 거리에 있는 특정업체에 시공해 주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환경배출업소인 카센타, 세차장, 대중교통등에 대한 단속강화입니다. 수질오염 및 공해 주원인이 되는 환경저해업소에 대하여는 고발로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 근원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도시고속도로가 우리관내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매연 등 생활불편이 예상되니 시정을 촉구합니다. 주민의 뜻을 시청 등 상급관청에 건의하여 소음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하여 공익요원 배치에요망됩니다. 각 동마다 취약지점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계를 넘어 인근 주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한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무인카메라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전염병 AIDS(에이즈)를 타업무에 우선하여 예방단속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모방송국에서 에이즈에 대하여 특별히 방송된 바가 있었습니다. 성북구 88번지, 동대문구 윤락여성 600명 설문 조사중 35%가 에이즈가 무엇인지 모르고 매춘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는 예방과 홍보에 너무나 형식적인 조치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병한 몇사람의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염경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소 설치등 기구 확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에이즈 예방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측에서 최소한도로 월곡동 88번지 윤락여성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검진해야 할 것이며, VTR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이 지역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지역인 일반주민에게는 동별로 순회하

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비디오 교육이라도 실시하여 찾아다니는 보건예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찾아오는 주민을 진료하는 것보다 현장을 방문하는 진료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우선을 두어」 성북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강령이 있겠습니다.

먼저 돈암제2동을 말씀드리면, 동장이하 전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일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창구 여직원의 경우 자유분방한 복장으로 민원을 대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무복을 입지 않는다면 구대여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저소득 시민에게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건축 지역이 많아 나대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아 조합측에서 방관하여 동직원이 대신 치우는 불합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보안등 안전기 수명의 내구년도가 1년이상임에도 1개월도 안되어 교체해야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릉 제1동이 되겠습니다.

동장이하 전직원은 화합된 분위기로 소관업무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으나 감사자료 제출 등 일부 직원의 업무숙지가 미숙한 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반조직 운영의 불합리입니다. 32개통중 2개통은 세대수가 적어 통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과 직결되는 각종 위원회 조직은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됨이 마땅함에도 통장위주로 구성하는 등, 중복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동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강령을 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던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감사를 해주신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중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윤수현 국장님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의 강한 의지와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불매 성북구의 시민복지분야는 날로 발전될 것임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1,600여명 성북구 공직자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 부터! 안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공직자 내부의 입장보다는 성북구민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시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많은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時40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12人

權 赫 騏	金 榮 植	李 大 一
金 南 孝	朴 景 錫	李 龍 燮
金 光 植	安 敦 洙	任 泰 根
金 珉 奭	吳 榮 作	洪 性 濤

○缺席委員 1人

崔 哲 模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金 鎮 永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專 門 委 員	林 洛 吉

○參席公務員

區 廳 長	陳 英 浩
副 區 廳 長	沈 長 錫
市 民 局 長	尹 守 鉉
保 健 所 長	曹 宗 希
社 會 福 祉 課 長	李 海 雄
家 庭 福 祉 課 長	權 英 愛
衛 生 課 長	具 滋 吉
產 業 課 長	金 敏 九
保 健 行 政 課 長	嚴 蓮 淑
保 健 指 導 課 長	具 明 子
醫 藥 課 長	黃 元 淑
정 룽 1 동 장	崔 弘 治
돈 암 2 동 장	金 興 洙